

[ 사회 ]

광주·전남 성폭력 피해자

10명 중 4명이 청소년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 10명 중 4명이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 전일호 판사가 작성한 '성폭력 범죄의 양형 사례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1일부터 이달 8일까지 광주지법 본원에서 처리한 성폭력 사건은 모두 45건으로, 이 가운데 5건(11%)이 청소년 성보호법위반이었다.

또 성폭력 범죄의 절반이 넘는 26건(58%)이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었으며, 이 중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이 12건(46%)로 가장 많았다. 이어 ▲특수 강도강간 4건 ▲강간 등 처상 3건 ▲특수 강간과 주거침입 강간이 각각 2건 ▲장애인 준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이 각각 1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제추행 상해와 강간처상 등 형법 별도 14건을 기록했다. 피해

자 52명 중 20세 미만은 전체의 40%인 21명(10세 이하 7명, 10대 청소년 14명)을 차지해 아동 성폭력의 심각성을 반영했다.

특히 가해자 43명 중 40~50대 중년이 16명(37.2%)으로 가장 많았고, 30대도 23.2%를 차지했으며 60~70대 고령자도 일부 포함됐다.

1심이 선고된 45건 중 실형과 집행유예는 각각 22건(49%), 20건(44%)으로 인신 구속이 대부분이었고 공소기간은 3건에 그쳤다.

실형이 이뤄진 경우는 대개 13세 이하 어린이를 범죄대상으로 삼았거나 누빈 경우가 많았고, 택시 승객이나 사립초·중·고교의 딸, 직장 동료, 이복동생의 딸, 전 짝주인 딸과 같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노린 경우에는 "죄질이 나쁘다"며 예외없이 가중처벌이 내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고등법원 산하 지법·지원 판사 23명은 17일 오후 광주교도소 2층 회의실에서 수행자 15명과 함께 '판사와 수행자의 대화' 시간을 갖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수형자 "전관에 우 분명히 있다" 판사 "오히려 역차별 받는다"

광주고·지법 판사 23명, 수행수와 허심탄회한 대화

"전관에 우가 있다고 보십니까?" (판사) "전관에 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수형자)

광주고등법원 산하 지방법원·지원 판사들이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수행자들과 '전관에 우'를 놓고 한동안 격론을 벌였다.

김관재 광주 고등법원장 등 판사 23명은 17일 오후 광주교도소에서 '수행자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18년째 복역중인 이모(39)씨 등 수행자 15명이 판사들과 마주앉았다. 이날 대화는 법관들이 재판 과정에서 수행자들이 느낀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듣고, 재판 관행에 잘못된 것은 없는지 살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대화 도중 광주지법 목포지원 이승환 부장판사가 "수형자들이 법원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다. 전관에 우가 정말 있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분위

기가 달궜다. 수행자 김모(42)씨는 "최근 변호사로 개업한 모 부장판사를 선임하면 형량이 많이 줄어든다는 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행자도 "법복을 벗고 막 개업한 변호사들의 수임료가 1천만원대를 호가하는 반면, 오래된 변호사는 300만원 수준이다. 전관에 우는 존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 또는 가측들의 기대심리 때문에 최근 웃을 벗은 변호사들의 수임료가 상승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면서 "요즘 판사들에게 전관에 우는 통하지 않고,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한 수행자가 나서 "같은 판사에게 1심에서 똑같은 죄명으로 같은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인데도 항소심에서 한 명은 형량이 줄고, 한 명은 가각되는 사례도 많이 듣고 본다"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또 다른 판사가 나서

"언제 이야기나. 80년대와 지금은 엄연히 다르다"면서 "변화된 사법부의 모습을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전관에 우' 공방에 앞서 수행자들은 여러 사건에 대한 범함재관이 이뤄지지 않아 양형이 높아졌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수행자도 있었고, ▲누번 적용 및 가중처벌에 대한 양형 불만 호소 ▲미결구금일수 몰수에 따른 명확하지 않은 기준 등에 대해 물기도 했다.

이에 지원장과 부장판사들이 직접 나서 이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수행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법 절차 등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해주기도 했다. 김관재 부장판사는 "수형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재판부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 "신뢰받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재 부장판사는 "판사들이 현명한 재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판 당사자들에게 판결이유를 더욱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Weather forecast for July 18th (Friday) across various regions including Jeonnam, Jeonbuk, Chungcheong, Gyeonggi, Seoul, and Jeju. Includes a map of Korea and a table of weather conditions.

전남대 '논문 의혹' 조사 내주 초 발표

김윤수 차기 총장 당선자의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을 조사 중인 전남대가 이르면 다음 주 초에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대 관계자는 "18일 열리는 연구윤리실질심사위원회에서 김 당선자 논문 관련 조사위원회의 결과가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속한 처리를 위해 조사위의 보고 다음 날 기자회견을 통해 결과를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18일이 금요일인 점을 감안해 기자회견은 월요일인 21일쯤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전남대가 김 당선자의 논문 중복 게재 의혹 해소를 위해 서둘러 일정을 진행하는 것은 취임 한 달을 앞두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아직 총장 임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4년 전 강경재 총장도

취임 한 달여를 남긴 시점에 임명을 받았다.

전남대는 총장후보 선거(5월21일)가 끝난 뒤 얼마 되지 않은 6월 초 선거 1위를 차지한 김 당선자와 2위인 박형호 교수 등 2명을 교과부에 총장 후보자로 임명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당선자의 전공이 이공계열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 논문의 물리적 양이 많지 않은 점도 조사의 속도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이유로 분석된다.

연구윤리실질심사위는 지난 11일 관련 학회가 추천한 외부 전문가 2명, 농업생명과학대학을 비롯한 전남대 내 이공계열 단과대학 교수 5명 등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가 달궜다. 수행자 김모(42)씨는 "최근 변호사로 개업한 모 부장판사를 선임하면 형량이 많이 줄어든다는 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행자도 "법복을 벗고 막 개업한 변호사들의 수임료가 1천만원대를 호가하는 반면, 오래된 변호사는 300만원 수준이다. 전관에 우는 존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 또는 가측들의 기대심리 때문에 최근 웃을 벗은 변호사들의 수임료가 상승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면서 "요즘 판사들에게 전관에 우는 통하지 않고,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한 수행자가 나서 "같은 판사에게 1심에서 똑같은 죄명으로 같은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인데도 항소심에서 한 명은 형량이 줄고, 한 명은 가각되는 사례도 많이 듣고 본다"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또 다른 판사가 나서

전과 누락·이중기소등 재판 실수 관행 여전

전과 누락이나 이중기소, 엉뚱한 누번 적용 등 법원의 재판 실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광주고등법원 양형실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광주고법 제1형사부에서 처리한 239건 중 61.9%인 147건은 항소기각됐으며 38.1%인 92건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파기되기도 했다.

순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파기된 사건은 33건이며, 이 중 10건은 실형은 유지하면서 형기만 감형됐다. 전체 파기건수 중 21.4%인 15건은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형종이 변경됐으며 집행유예 기간 단축 또는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경우도 각각 3건, 1건으로 파악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수근 구속 면했다

정수근 구속 면했다. 선처 호소...영장 기각

만취상태에서 경찰관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 영장이 청구된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31·롯데 자이언츠)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전상훈 영장전담판사는 17일 정수근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되고 있다. 그를 또한 피해자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의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며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정수근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물면서 "공인으로서 해서야 집행유예로 형종이 변경됐으며 집행유예 기간 단축 또는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경우도 각각 3건, 1건으로 파악됐다."

정수근은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이날 오후 5시50분께 해운대경찰서 유치장을 나왔다.

연합뉴스

Large advertisement for 'Daehakpyeonim 10myeongjeung 7myeong-eun Kimyoungchulshin' (대학편입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Includes website www.kimyoung.co.kr, dates for public explanation sessions (10:00, 2:00, 4:00, 6:00), and contact information for Daehakpyeonimhakwon.

Table titled '공시최고' (Public Notice) listing various court cases with columns for '사건번호' (Case No.), '신청인' (Applicant), and '목적' (Purpose). It details numerous legal proceedings and judgments.